교수채용 대가 1억원 요구·논문 대필 …

‘자살 시간강사’ 유서 내용 진상조사

서부경찰, 사실관계 확인 작업 … 이메일도 수사 검토

조선대 진상조사위 구성·교수노조 강사제 개선 촉구

교수채용 비리와 논문 대필 등 대학사회의 만연한 비리구조를 고발하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조선대 시간강사 서모(45)씨의 유서 내용에 대해 진상조사에 나섰다.

서씨의 죽음과 관련, 경찰은 유서 내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으며 조선대와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논문 대필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광주서부경찰은 27일 “서씨가 남긴 유서에서 교수채용과정에서 6000만원에서 1억원을 제의한 대학 명칭이 구체적으로 언급돼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가족들이 동의할 경우 서씨의 이메일도 조사, 논문 대필과 교수 채용대가 금품 요구 여부를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조선대는 이날 경찰의 수사와는 별도로 서씨가 유서를 통해 주장한 논문 대필과 관련 대학 연구처·교무처·교수평의회·비정규직교수노조로 구성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조선대는 조사결과에 따라 해당 교수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는 한편 대필 논문으로 학위를 취득한 석·박사에 대한 학위취소, 비정규직교수에 대한 처우 개선 대책 마련 등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 조선대 분회도 서씨가 가족들 앞으로 남긴 유서에 “비정규노조(조선대)를 찾아 투쟁방법을 확인하세요”라고 당부한 것과 관련 이후 모든 대처를 노조 조선대 분회에 위임한 것으로 보고 경찰에 관련 내용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조선대 분회는 이날 ‘비정규교수 서씨의 자살에 대한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조선대 분회의 입장’이라는 성명을 내고 “고인은 교수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대학사회 현실에 절망했고, 스승에게 수많은 논문을 헌상하고 주종관계의 모욕을 참았으나 돌아온 것은 배신 뿐이었음을 고백했다”며 “부패하고 몰염치한 일부 교수들의 자성을 촉구하고 대학의 잘못된 연구문화와 강사임용제도의 개선을 대학과 교육당국에 요구한다”고 밝혔다.

조선대 분회는 또 유서의 내용 중 하나인 유서대필의 진상을 파악한 뒤 사실로 드러날 경우 서씨의 유서에서 언급된 교수의 이름이 공동으로 게재된 논문 54편에서 해당 교수의 이름을 삭제하는 캠페인도 벌일 예정에 있어 대학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분회는 이와 함께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시간강사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서씨의 명예회복에도 나설 예정이다.

숨진 서씨의 아들(24)은 “아버지가 남긴 유서를 바탕으로 조선대 분회와 함께 대책을 강구하고 있으며 해당 교수와 직접 면담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서씨가 시간강사로 일했던 조선대 인문대 현관에는 27일 밤부터 분향소가 마련돼 학생과 교수들의 조문이 이어지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섬 노예생활 10년

지적장애 40대 눈물의 가족 상봉

함평경찰, 지문채취 확인

지난 26일 오후 함평군 나산면의 장애인보호시설 ‘샤론의 집’에서는 눈물의 가족상봉이 이뤄졌다. 가족과 생이별을 한 뒤 갖은 고생을 해온 40대 지적장애인이 14년 만에 가족들의 품에 안긴 것이다.

김모(42·지적장애 3급)씨의 기구한 인생이 시작된 것은 지난 1996년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김씨는 친구들과 놀기 위해 경기도 포천의 집을 나온 뒤 무슨 생각에선가 무작정 지나는 버스에 올랐다.

길을 잃게된 김씨는 전국을 떠돌다 완도의 한 미역 가공공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지냈다. 이후 김씨는 10여년간을 노예처럼 생활하던 미역공장이 부도나면서 2008년 10월 ‘샤론의 집’에 입소했다.

김씨가 사라지자 가족들은 실종신고 후 신문에 광고를 내고 전단지를 뿌리며 백방으로 수소문했으나 김씨를 찾지 못했다.

하지만 경찰이 지난 3월 실종아동 일제수색 기간에 김씨가 무연고자라는 것을 밝혀내면서 가족 상봉에 희망의 빛이 비치기 시작했다.

함평경찰서 소속 류은정 경사(여·38)는 김씨의 DNA를 채취해 신분확인에 나섰다. 김씨가 사망했다고 판단한 가족들이 2003년 호적을 말소함에 따라 신분확인이 되지않았다.

결국 류 경사는 김씨의 지문에 대한 정밀 분석작업을 벌인 끝에 포천에 살고있는 가족들을 확인했다. 포천시로부터 이 소식을 듣고 한걸음에 달려온 김씨의 어머니(73)와 큰형(49), 작은형(45)은 14년 만에 김씨와 감격의 포옹을 나눴다.

류 경사는 “김씨가 오랜 노동 등으로 인해 지문이 거의 남아있지 않아 지문채취에 적잖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14년을 타향에서 떠돌던 장애인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서부취재본부=황운학기자 hwang@

고압선 감전 40대 긴급 후송

27일 오전 11시15분께 광주시 동구 소태동 D아파트 뒷산 낙석방지 작업장에서 유모(48)씨가 고압선에 감전돼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다.

공사현장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갑자기 불꽃이 튀며 유씨가 쓰러졌다”고 진술했다. 유씨는 사고 당시 7~8m 높이의 굴절차량 탑승함 위에서 친동생(46)과 낙석제거작업을 하고 있었으며, 탑승함 위·아래로 3m 가량 떨어져 있던 고압선의 전압은 2만2900V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고립 낚시꾼 3명 구조

여수해경

여수의 한 무인도에서 낚시를 하던 낚시꾼 3명이 타고온 배가 떠내려가 고립됐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에 구조됐다.

27일 여수해양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40분께 여수시 남면 소리도 남쪽 1마일 해상의 간여암에서 낚시를 하던 김모(62·여수시 돌산읍)씨 등 3명이 “배가 떠내려가 고립됐다”며 해경에 구조를 요청했다.

여수해경은 100t급 경비정 1척을 사고 현장에 출동시켰으나 초속 12~16m의 강한 바람과 2.5~3m 높이의 너울성 파도로 인해 구조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다.

김씨 등은 이날 정오께 김씨의 4.49t급 어선 샤크호를 타고 간여암에 도착한 뒤 배를 묶어놓고 낚시를 하던 중 갯바위에 메어놓은 밧줄이 강풍에 의해 끊어져 고립됐다.

김씨는 통신장애로 인해 수차례에 걸쳐 휴대전화를 시도한 끝에 이날 오후 6시10분께 해경에 신고했으며, 출동한 해경에 의해 1시간여 만에 구조됐다.

/동부취재본부=박성태기자 mihang@

5·18 부활제 ‘진혼굿’ 5·18 민중항쟁 마지막 날인 27일 광주시 서구 치평동 광주시청광장 특설무대에서 열린 ‘부활제’에서 서영 무용단원들이 오월 영령의 넋을 위로하는 진혼굿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입찰의 제왕’ 장례식 유력인사 조문 눈길

한때 건설 공사 수주과정에서 탁월한 실력을 보여온 광주의 한 중견기업 대표 장례식에 유력 인사들의 조문이 잇따랐다.

27일 오전 11시 곡성군 오곡면 인근 야산에 묻힌 광주 S기업 대표 김모(68)씨의 안장식에는 가족·지인 등 100명이 참석해 비교적 조촐하게 치러졌다.

하지만, 전날 고인의 빈소가 마련된 광주시 동구 모 장례식장에는 선후배 및 동료와 각계 인사 등 1000여명이 다녀갔다. 또 지역 기관장을 비롯한 유력 인사들이 보낸 조화가 빈소를 가득 메웠다.

고인의 선후배들이 타고 온 것으로 보이는 고급 승용차 수십 대가 몰리면서 일대가 한때 교통체증을 빚었다. 김씨는 한때 광주·전남지역 건설업계의 공사 수주의 숨은 실력자로 ‘입찰의 제왕’으로 불렸다. 고인은 화순에서 조경·토목·건설업을 아우르는 회사를 설립한 뒤 이끌어왔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 문예회관장 중국서 음주 추태

단원들에 강제로 술 먹이고 포옹 … 市, 감사 착수

광주시는 27일 중국에서 술을 마신 뒤 추태를 부린 것으로 알려진 시 문화예술회관 문모 관장(4급)을 대기발령하고 진상조사를 위한 감사에 착수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문 관장과 시립무용단·국악관현악단 단원 등 75명은 한·중 수교 18주년을 기념, 중국 문화부 초청으로 지난 12일부터 이틀간 ‘광주예술단 초청 공연’을 위해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중국을 방문했다.

문 관장은 13일 공연이 끝난 뒤 중국 측이 마련한 환송 만찬에서 단원들에게 강제로 술을 먹이고 중국 측 남성과 포옹하는 등 과도하게 행동했으며, 4급 이하 직원은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도록 돼 있는 광주시여비규정과는 달리 시립무용단장·국악관현악단장 등과 함께 비즈니스석에 탑승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광주시는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문 관장을 비롯한 시립무용단·국악관현악단 단장 및 단원들을 대상으로 사실 파악에 나섰다.

광주시 관계자는 “당사자가 광주시여비규정을 어기고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했으나 문제가 될 정도는 아니었다고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동석자 진술을 확보해 조속히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돼지고기 요리하려 양념 2병 훔쳐

쌍나팔

○…광주동부경찰은 27일 집에 있는 돼지고기를 요리하기 위해 대형 할인마트에서 돼지갈비 양념 2병을 훔친 박모(여·68)씨를 절도 혐의로 입건.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6일 밤 8시40분께 광주시 동구 계림동 모 할인마트 1층 매장에서 시가 4000원 상당의 갈비양념 2병을 훔친 혐의.

○…경찰조사 결과 박씨는 이날 냉장고 청소를 하다가 돼지고기를 발견하고 마트 진열대에 있던 양념을 훔쳤는데, “소주를 사러 마트에 갔는데 양념이 보이자 순간 욕심이 났다”고 진술.

/양수현기자 yang@